투어 번호
LKCB7H2T2E

낙원의 발자국 (17일)

17일 · 16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이 체험 소개

이 17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시작하여 건조 지역의 고대 도시들, 캔디와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산악 지역, 남동부의 야생동물 공원, 그리고 해안 요새 도시 갈레까지 스리랑카 전역을 종단합니다. 이 루트는 국가의 주요 고고학 유적지, 차 재배 고지대, 그리고 해변을 하나의 연속된 여행으로 연결하며, 운전 가이드가 전 과정을 운전하고 물류를 담당합니다.

여정을 따라 아누라다푸라와 폴로나루와의 폐허 왕도, 야파후와와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 담불라의 동굴 사원, 그리고 캔디의 성스러운 치아 유물 사원을 둘러봅니다. 3번의 사파리가 미네리야, 갈 오야, 우다왈라웨에서 실시되며, 시기리야 근처의 마을 및 호수 탐방과 갈레 근처의 강 보트 여행이 포함됩니다. 캔디와 갈레의 자유 시간은 휴식 또는 독립적인 탐험을 위해 할당됩니다.

이것은 스리랑카의 역사, 자연, 해안을 하나의 여행에서 보고 싶은 여행객을 위한 개인 투어로, 각 날의 운전, 루트 설정, 속도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콜롬보

투어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하며, 역사적인 명소와 쇼핑 거리를 함께 돌아봅니다.



콜롬보 시내 명소

올드 라이트하우스, 옛 국회의사당, 갈 페이스 호텔, 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유서 깊은 명소들을 방문합니다.

Gihanud2001 · CC0



인디펜던스 광장과 레이스 코스

인디펜던스 광장이나 레이스 코스 주변의 쇼핑몰, 부티크 상점과 명품 매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Charaka Ranasinghe · CC BY 2.0

Day 2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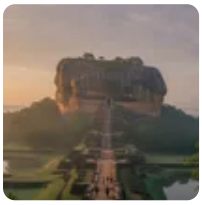
이날은 서기 10세기까지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를 둘러보는 데 보냅니다.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

광대한 유적지에 흩어져 있는 불탑과 수도원 건물, 연못들을 살펴보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와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을 둘러봅니다.

Day 3 아누라다푸라 → 야파후와 → 담불라

이날은 암석 요새 야파후와를 거쳐 담불라 석굴 사원에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야파후와 암석 요새

야파후와는 13세기 정부의 소재지였으며, 한때 불치사 사리가 봉안되었던 곳입니다. 입구의 아치와 장식 계단을 살펴보고, 정상의 사원 유적과 테라스를 따라 걸으며 요새 곳곳에 흩어진 조각상들을 감상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석굴들에는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더불어,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과 여러 신들의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굴로는 신성한 왕의 석굴, 대왕의 석굴, 그레이트 뉴 수도원 석굴이 있습니다. 석굴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4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시기리야 암석 요새 등반과 주변 평원에서의 마을 체험을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암석 요새

서기 5세기에 세워진 이 요새는 카시아파 왕이 다스렸습니다. 사자 발 모양으로 꾸며진 입구를 지나, 색이 바래지 않은 벽화를 감상하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 테라스식 정원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를 지나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통과합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을 체험

하산 후에는 인근 마을을 방문해 고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사파리를 즐기고, 논길을 따라 걸으며, 장작불로 지어 연잎에 담아낸 가정식 점심을 맛봅니다.

Day 5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이날은 폐허가 된 도시 폴론나루와와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를 함께 둘러봅니다.



고대 도시 폴론나루와

약 800년 전 스리랑카 중부 평원을 다스리던 왕권의 중심지였던 폴론나루와는 번성했던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로, 지금도 사원과 유적들을 통해 전성기 도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세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사파리는 코끼리와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서식하는 공원의 관목지와 숲을 지나갑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건기에는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도 유명합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6 담불라 → 마탈레 → 캔디

캔디로 향하는 길에 마탈레 인근의 향신료 농원에 들른 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유포리아 스파이스 앤 허벌 가든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인근에 위치한 이 농원에서는 열대 환경 속에서 자라는 허브와 향신료, 식물들을 살펴보며, 가이드와 함께 그 용도와 아유르베다의 기본 개념을 배우는 향신료 투어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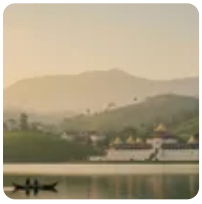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에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소로는 캐논볼 나무, 현수교, 미로 정원, 그리고 올라가 볼 수 있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7 캔디

신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캔디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전통 공연을 관람하는 하루입니다.



캔디 시내 투어

캔디는 1815년 영국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스리랑카의 수도였으며, 지금도 섬의 문화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에드워드 양식의 건물들과 왕이 만든 호수, 자연 보호구역이 어우러져 있으며, 왕립 식물원 인근의 숲이 우거진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어에는 현지 시장과 건축 명소 방문이 포함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불치사(불사리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채색된 복도와 홀을 지나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을 감상합니다.

A.Savin · FAL



캔디 전통 공연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 이 공연에서는 불의 춤, 칼의 춤, 북소리에 맞춘 캔디안 춤 등 스리랑카의 전통 예술을 선보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8 캔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캔디에서의 자유 일정입니다.

Day 9 캔디 → 갈 오야

여정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외지고 방문객이 적은 야생 지역 중 하나인 갈 오야로 이어집니다.

갈 오야 지역

여전히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 외딴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야생 생물을 탐험하며 자연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Day 10 갈 오야

이날은 갈 오야 국립공원에서 지프 사파리를 즐기는 데 보냅니다.



갈 오야 국립공원 사파리

아침 햇살과 새소리, 곤충 소리로 생동하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드라이브로, 중간중간 멈춰 조용히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전문 자연 가이드가 회색 랑구르, 사슴, 새, 소형 포유류, 코끼리, 파충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표범까지 안내해 줍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1 갈 오야 → 누와라엘리야

여정은 차 재배지와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를 간직한 누와라엘리야 마을로 올라갑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차 재배지의 심장부, 해발 6,200피트에 자리한 누와라엘리야는 영국인들에 의해 조지안 양식부터 앤 여왕 양식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세워졌으며, 잔디밭과 울타리, 성공회 교회, 골프장, 공원들이 어우러져 서늘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2 누와라엘리야 → 엘라

이날은 차 재배지를 지나 엘라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와 명소들을 둘러봅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선명한 초록빛 차밭과 암석 지대를 지나며 리틀 아담스 피크를 바라보는 전망을 감상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나인 아치 브리지를 걸으며 그 건설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듣습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설계로 알려진 데모다라 기차역에서 도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A.Savin · FAL

Day 13 엘라 → 우다왈라와

남쪽으로 향하는 이날 여정에는 우다왈라와 국립공원 사파리가 포함됩니다.



우다왈라와 국립공원 사파리

세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사파리는 1970년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조성된 공원의 습지와 숲,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물새류와 스리랑카 코끼리로 유명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나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4 우다왈라와 → 갈레

투어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요새가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이자 무역항인 갈레 해안에 도착합니다.



갈레 요새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건축물과 오래된 모스크, 교회, 저택, 박물관들을 걸어서 둘러보며, 중간중간 레스토랑과 카페에 들러 쉬어 갈 수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갈레 해변

해변가에서는 바닷바람과 바다 경치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5 갈레

이날은 갈레에서 마두강 보트 여행이 주요 일정입니다.



마두강 보트 투어

두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보트 투어는 맹그로브 수로를 지나며 일광욕을 즐기는 악어와 물왕도마뱀을 관찰하고, 계피를 재배하는 섬에 들러보고, 물고기 마사지를 체험하며, 물새들을 감상합니다.

SUPindia · CC BY-SA 4.0

Day 16 갈레

호텔이나 해변에서 보내는 갈레에서의 자유 일정입니다.

Day 17 갈레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며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Entry Visa Fees, please visit www.eta.gov.lk for more detail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